

시페퍼스 “홈 첫승으로 광주 팬 성원 보답하겠다”

V리그 오늘 현대건설전...세터 이고은, 리드와 어떤 호흡 보여줄지 주목 최장신 어르형 활약 기대...새롭게 가세한 3인방 경기력이 승부의 관건

“지난해보다 나은 경기력으로 홈팬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광주 AI페퍼스가 28일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건설과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경기를 치른다. 올시즌 첫 홈경기다.

지난해 3승(28패)을 거둔 AI페퍼스의 올해 목표는 10승. 홈에서 치르는 시즌 2번째 경기를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첫 홈경기에 나서는 세터 이고은, 니아 리드, ‘슈퍼루키’ 염어르형의 활약 여부도 관전 포인트.

세터 이고은은 FA시장에서 영입한 핵심 공격자 원이다. 어포짓 스파이커(라이트)인 리드와 어떤 호흡, 하모니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드는 신장 189cm로, 2021-2022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 1위를 기록한 주 득점원이다.

어르형은 2022-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194.5cm로 2022-2023시즌 여자부 국내 최장신 선수인 어르형은 새 얼굴을 기다리는 V리그에 활력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형실 감독은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페퍼스와 경기하는 현대건설은 자비가 없는 팀이다. 전대사대부와 출신 강형성 감독이 이끄는 현대는 지난해 5연패를 안긴 팀이다.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5게임에서 1경기만 2세트를 내줬을 뿐 나머지 경기를 0-3으로 페퍼스를 눌렀다.

AI페퍼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즌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으로 패했지만 현대건설을 버텨까지 밀어붙인 바 있다. 이 경기력이 살아난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

김형실 감독은 “AI 페퍼스는 도전자 입장이다. 다양한 공격방식을 써보고 팀웍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페퍼스는 지난 25일 흥국생명전 이후 곧바로 광주 홈에 내려와 페퍼스타디움에서 현대전을 준비했다.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홈구장에 적응하면서 흥국생명전에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김 감독은 흥국생명전에서 “연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참패 원인을 냉정히 진단한 바 있다.

후위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은 데다 아웃사이드 히터인 박경현, 이한비가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페퍼저축은행의 이날 경기 공격성공률은 23.66%로 흥국생명(47.87%)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AI페퍼스가 홈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팀이 부상병동이다. 최선의 경기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과 광주 시페퍼스의 경기. 1세트 페퍼스선수들이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장 이한비, 아웃사이드 히터 박서은 등이 줄줄이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감독은 “홈 경기를 앞두고 지난해보다 설레고 긴장된다. 프로 2년차 팀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2-2023 프로배구 정규리그는 지난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 장정의 첫발을 땀다. 남자부 7개, 여자부 7개 등 총 14개 구단은 내년 3월까지 팀당 6경기씩 6라운드를 치러 ‘봄 배구’에 출전할 팀을 가린다.

이번 시즌 비디오 판독에는 손이 네트를 넘어가는지를 살피는 오버넷이 추가됐다. 비디오 판독 항목은 오버넷에 볼의 인-아웃, 터치아웃, 네트 터치, 안테나 반칙, 라인 반칙, 수비 성공 실패, 후위 경기자 반칙, 리베로 반칙, 포 히트, 시차가 있는 더블 콘택트를 합쳐 11개로 늘어났다.

이런 시즌 비디오 판독에는 손이 네트를 넘어가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페퍼스 홈 개막전 다채로운 행사

인순이 콘서트·할로윈 컨셉 DJ 쇼...다양한 경품도 제공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이 28일 광주 홈 개막전에서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AI페퍼스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가수 인순이의 무료 콘서트와 할로윈 컨셉의 DJ 쇼를 선보인다.

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페퍼스타디움 리뉴얼도 단행했다.

경기장 내에 20×6m 사이즈의 초대형 고품질 LED 모니터와 1, 2층 구분 펜스에 360도 리본 LED를 설치해, 더욱 역동적인 경기관람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플로어 코트 색상도 AI페퍼스의 상징인 빨간색을 중심으로 변경했다.

관중 동선 로비에는 팬들을 위한 다양한 포

토존과 배구와 관련한 역사이팅 체험존을 설치했다.

선수들의 스파이크 높이 체험, 미니 리시브 게임, 인터뷰 포토존 등을 운영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후 선수와 기념 촬영을 갖고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패밀리존을 신설했으며, 치어리더와 함께 열렬한 응원을 펼치고 현장 경품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크레이지 페퍼스 존’(Crazy PEPPERS Zone)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 국가 유공자 등에게 무료 좌석과 2+1 티켓 혜택을 제공하는 ‘ESG 존’을 신설해 운영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청소년·주니어 국대 출신 품었다

신인드래프트 김수민·나지현 지명 오세일 감독 “취약 포지션 영 보강”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주니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김수민과 나지현을 영입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7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수민(한국체대, RW)과 나지현(의정부여고, LB)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수민(1라운드 5순위)은 황지여중과 황지정보 산업고를 거쳐 한국체대 졸업 예정으로, 청소년대표와 주니어대표 출신이다.

2017년 청소년대표 시절에는 제7회 아시아 여자 청소년선수권과 제99회 전국체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2019년 주니어대표 때는 제15회 아시아 여자 주니어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김수민은 “광주도시공사 팀이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이 좋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지현(3라운드)은 의정부여고 졸업 예정으로 2019년 주니어 국가대표를 거쳤다.

나지현은 패스 능력이 뛰어나 레프트백과 센터백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오세일(가운데) 감독이 2023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서 낙점한 김수민(맨왼쪽)·나지현(오른쪽)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들은 오는 11월에 개막할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출전을 위해 합동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세일 감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포지션이었던 날개(윙) 쪽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시

즌과 같이 선수들과 한마음이 돼 팀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기보배·이승윤·안산 등 1차 관문 통과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진출

광주-전남 대표 공사들이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 태극마크를 향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7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3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윤(남구청), 최미선(순천시청),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64명이 오르는 2차 선발전에 진출했다.

여자부에서는 기보배가 8회차 70m 기록 합계 2717점으로 10위, 안산이 2714점으로 13위, 최미선이 2706점으로 16위에 포진했다.

이은경(순천시청)이 22위(2692점), 최민선

(광주시청)이 26위(2688점), 오예진(광주여대)이 36위(2677점), 장유정(광주시청)이 39위(2673점), 탁해운(순천대)이 52위(2654점), 강수빈(순천대)이 54위(2651점), 최민영(순천대)이 61위(2642점), 김민서(광주여대)가 64위(2640점)를 차지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이 2742점으로 13위에 자리한데 이어 이진용(조선대)이 47위(2683점), 김정훈(조선대)이 57위(2675점), 정다워(남구청)가 62위(2670점)를 기록,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남·여 각 64명은 오는 11월5일부터 9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차 선발전을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장애인 볼링 이찬미 데플림픽 금메달

박선옥과 짝 이룬 여자 2인조 결승서 싱가포르 누르고 우승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 박선옥(43·강원도장애인체육회)-이찬미(34·전남장애인체육회) 조가 2021 카시아스두술하계데플림픽(청각장애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두 선수는 2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볼링 여자 2인조 결승에서 191점을

얻어 싱가포르 야코야마 아델리아 나오미-퀵 휘 김벌리(168점)조를 누르고 우승했다.

이번 하계데플림픽 19개 종목은 지난 5월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렸고, 볼링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다.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종합 최종 순위는 볼링 종목 성적을 합산해 확정된다. 한국은 이번 볼링 종목에 선수 12명, 임원 7명 등 총 19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리멤버
2관	블랙 아담
3관	자백, 공조2: 인터내셔널,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4관	자백
5관	리멤버
6관	자백
9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7관	씨네케틀, 블랙아담, 스마일, 정직한 후보2, 오편: 천사의 탄생
8관	씨네케틀, 스마일, 인생은 아름다워, 오편: 천사의 탄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GAC기획 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